이라크 파병 미군의 눈물! 미군의 이라크 증파가 결정된 10일 미국 조지아주 스튜어트 기지에서 이라크로 떠나는 한 미군 병사가 약혼녀에게 작별 인사를 한 뒤 고개를 떨군 채 괴로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시의 '위험스런 마이웨이'

미군 2만여명 증파 강행 '새 이라크 정책' 발표

"지금 물러서면 이라크 붕괴"…민주, 즉각 반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0일 비판적 여론에도 불구, 이라크에 미군 2만1천500명을 수도 바그다드와 안바르 두 곳에 3단계로 나눠 증파하겠다고 발표, 이라크 사태의 정면돌파 의지를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백악관 특별 기자회견에 앞서 공개한 연설문을 통해 "지금 이라크에서 물러서면 이라크 정부의 붕괴를 막을 수 없고, 우리 군이 이라크에 더 오래 발목이 잡히고 한층 위험한 적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바그다드의 경우 총 1만7천500명을 증파하되 1진격인 5개여단은 오는 15일까지, 2진은 2월 15일까지, 나머지는 그로부터 1개월내에 각각 투입키로 했다고 부시 대통령은 설명했다.

또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의 수니파 저항세력들과 알 카에다 소속 외국인 전사들의 근거지인 이라크 서부 안바르에는 해병대 4천명을 급파키로 했다.

이라크 정부측도 이런 증파 계획에 맞춰 바그다드에 3개 여단을 2월 1일까지 먼저 투입하고 2진격인 2개여단은 2월 15일까지 증원키로 약속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추가 파병을 통해 올 여름까지는 바그다드의 안전을 확보, 미군을 수도 밖으로 철수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는 11월까지 이라크인들이 자국 18개주(州) 전역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시는 그러나 초당적 태스크 포스였던 '이라크연구그룹(ISG)'이 권고한 오는 2008년 초까지 이라크 미군 철수, 이란 및 시리아와의 직접 대화 추진 등에 대해서는 거부 입장을 밝혔다.

다만 전쟁으로 피폐화된 이라크의 고용창출 및 경제회생을 위해 10억달러를 지원하고 병력을 추가 투입하되 석유수입금의 범종파적 공평 분배, 수니파의 정부요직 진출 제한 완화, 100억달러의 이라크 재건비 약속 등 시아파가 주도하는 현 이라크 정부의 추가조치 이행 여부와 연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했다.

부시 대통령은 "미국의 대 이라크 공약은 무한정 지속될 수 없다"면서 "만약 이라크 정부가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미국인들의 신뢰를 잃고 이라크 국민의 지지도 잃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미 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내주 청문회 개최와 미군 규모를 현행 13만2천명 수준으로 제한하는 입법안 처리, 예산심의권 등을 총동원, 부시 대통령의 미군 증파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 백악관과 민주당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고대 희랍 수수께끼 풀릴까

英 아마추어 역사 탐구가 "이타카 섬 확인했다" 주장

영국의 아마추어 역사 탐구가가 고대 그리스 시대의 수수께끼 중 하나인 전설의 영웅 오디세우스의 고향 이타카 섬을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를 찾아냈다고 주장했다.

호메로스가 서사시 오디세이아에서 주인공인 오디세우스의 고향으로 묘사한 이타카 섬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은 1870년대에 고대 트로이를 터키 해안에서 발견한 것과 맞먹을 성과로 간주되지만 오디세우스나 이타카의 실존 여부는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경영 컨설턴트로 일하는 영국의 비틀스톤씨는 그러나 이타카섬이 이타키섬의 서쪽에 있는 케팔로니아 섬의 반도인 팔리키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의 고전학자인 제임스 디글과 에든버러대학 지질학자인 존 언더힐의 자문을 얻어 팔리키반도와 케팔로니아섬 사이의 지협을 지하 122미터나 드릴로 파내려갔으나 석회석 암반이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비틀스톤씨 팀은 이를 토대로 팔리키 반도가 고대에는 섬이었으나 이후 지진으로 지반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팔리키 반도와 케팔로니아 섬을 떼어놓았던 해협이 메워진 것이라고 추정했다.

비틀스톤씨는 앞으로 지협을 따라 추가 조사를 하면 이같은 추정이 사실 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왕궁을 발견할 수 있는 발굴 사업의 단서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천년 동안 사람들은 호메로스가 이타카 섬의 위치를 잘못 기술했다고 생각해왔으나 나는 그가 옳았으며 다만 지형이 바뀌어 우리가 이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中 권력투쟁 신호탄 올랐나

상하이방, 후진타오에 "주석직 넘겨라"

올 가을 중국 공산당 17대 당대회에서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중국 지도부가 심상치 않다.

후진타오(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라이벌인 쩡칭홍 부주석에게 주석직을 넘길 것을 촉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 고위 지도부와 가까운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 쩡 부주석의 지지자들이 오는 2008년 개막되는 제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쩡 부주석에게 주석직을 이양할 것을 후 주석에게 촉구했다고 10일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더 이상 한 사람이 세 자리를 모두 맡을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당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후 주석은 현재 국가주석은 물론 공산당 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당·정·군 권력을 모두 장악하고 있다.

후 주석이 쩡 부주석에게 실제 주석직을 이양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로이터 통신은 후 주석이 쩡 부주석에게 주석직을 넘길지 확실치 않지만 오는 9월에서 11월 사이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17대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최고 지도자들 사이에 권력투쟁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후 주석의 약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의견과 권력 장악에 대한 후 주석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속도로 세가 위축되고 있는 상하이방(上海幇)이 반격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일, 후세인 처형으로 신경 날카로워졌을 것"

美 워싱턴대 심리학 교수

세계 독재자들의 심리 분석으로 유명한 미국 조지 워싱턴대의 제럴드 포스트 정치심리학 교수는 11일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의 처형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경이 더욱 날카로워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포스트 교수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김정일이)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편집증, 지나치게 의심과 두려움이 많은 환자였는데 '다음은 내 차례야' 하는 두려움이 더욱 심해졌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 후세인 전 대통령의 공통점으로 "표면적으로는 구세주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고 자신을 위대한 세계적 지도자로 묘사하고 있는 점"이라며 그러나 후세인은 어릴적 매우 가난하고 불행했던 반면 김 위원장은 태어날 때부터 후계자로 지목된 상태에서 자란 차이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